

사 랑 의 목 장

WEEKLY LOVE COLUMN

“익숙함에 안주하지 말고, 친밀함을 선택하라”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며 편안함을 느낍니다. 익숙함이
실수를 줄이고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익숙함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익숙함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관성에 젖게 하며, 모든
일에 기계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새롭고 설레던 것도 어느새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로 인해 소중함조차 잊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불편할 때 가장 많이 배운다”라는 말처럼,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WORKS IN
PROGRESS**

**SORRY FOR ANY
INCONVENIENCE**

익숙한 상황에서는 뇌가 새로운 길을 찾을 이유가 없지만, 낯설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는 뇌가 활발히 작동하며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편함 속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크게 자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루틴이 되며, 신앙이 형식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조차 익숙함 속에
잠식되곤 합니다.

GOOD

하지만 낯설고 불편한 상황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익숙함 속에서 정체되어 있던
신앙이 깨어나고, 하나님께 더 귀 기울이게 되며,
말씀 앞에 정직해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불편함은 축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아가 깨어지고, 다시
시작하며,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어짐을 통해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짐을 통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영원한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단지 읽는 데 그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릴 때, 내 생각과
삶을 흔들며 나를 일깨웁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면, 기쁨이 솟아나고,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둘째,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었고,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며,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 목회자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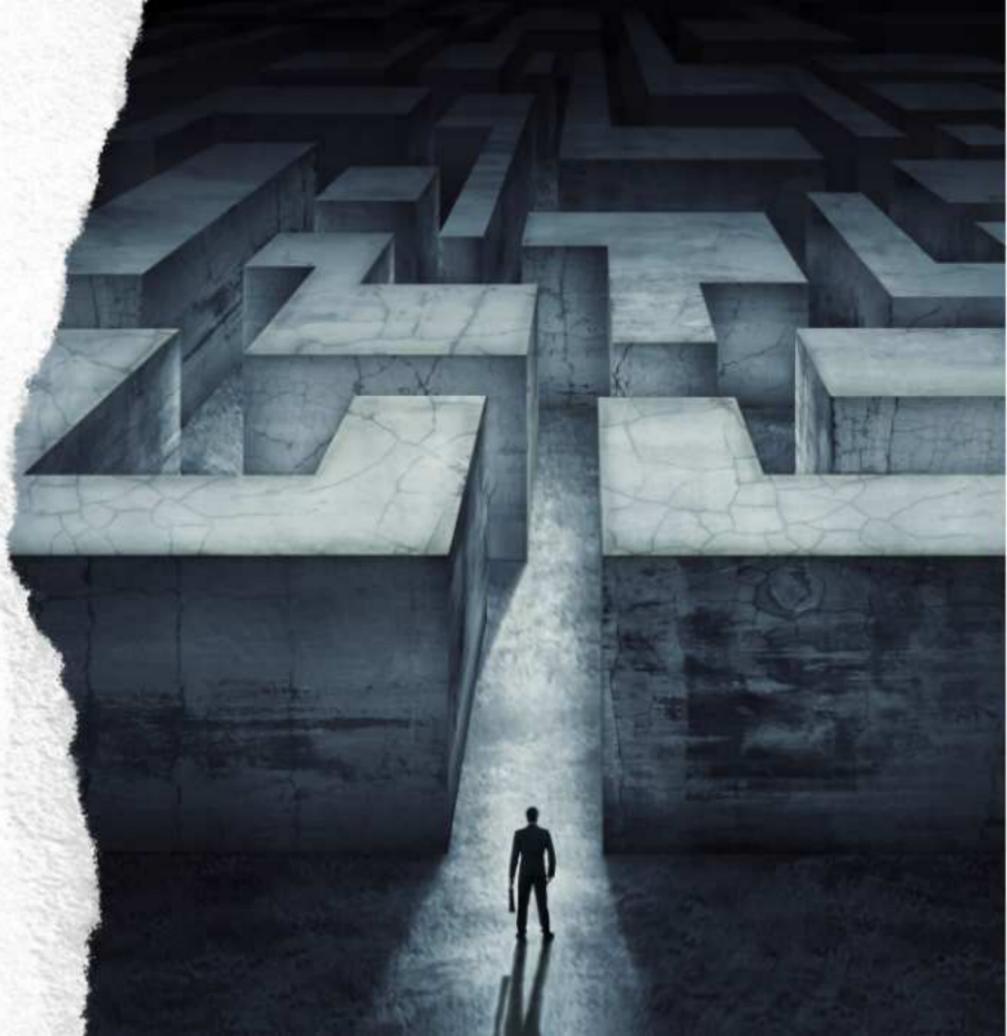
진정한 스승은 우리를 편안하게 안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함을 통해 성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안락함을 깨뜨리고,
생각과 삶을 흔들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합니다.



셋째, 위대한 사명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고기를 낚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불러내어, 새로운 도전과 사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 길은 언제나 낯설고, 때로는 두렵고
불편하지만, 동시에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익숙한 관계에 머물지 말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갑시다. 익숙함은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친밀함은 우리를 살립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지 말고, 주님 안에서 변화를
추구합시다.



변화는 불편함과 낯섦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비전, 새로운 나를 향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 변화는 우리를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START



오늘도 조용히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가? 아니면 그저 익숙해진
것뿐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그
대답에 반응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의미를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